■ 민족문화연구 제97호(2022.11.3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69-90.
http://doi.org/10.17948/kcs.2022..97.69

【 특집 : 『金石集帖』의 종합적 연구 2 】

『金石集帖』 수록 武人 자료에 대하여*

정우봉(鄭雨峰)**

목 차

1. 들어가며
2. 『金石集帖』 수록 武人 자료의 현황
3. 『金石集帖』 수록 武人 자료의 비교 검토: 李浣과 張鵬翼을 중심으로
4. 마무리

국문초록

조선시대 武人의 존재에 대해서는 李舜臣, 林慶業 등 소수의 인물 정도만이 알려져 있으며, 그 밖에 임진왜란이나 정묘호란 등에서 활약한 의병장이나 장수 정도가 알려져 있다. 文治를 중시했던 조선시대 이래의 역사적 전통과 함께 '武士道'를 제국주의의 발판으로 삼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근대의 기억이 겹쳐서 '武'에 대한 담론이 본격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武'에 대한 재인식, '武'에 대한 담론의 활성화가 현 단계 긴요한 과제의 하나라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 논문에서는 일본 교토대학 부속도서관 소장 『金石集帖』에 수록된 武人에 관한 자료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금석집첩』은 武臣과 武將의 항목을 별도로 설정하여 武人들을 한곳에 모아놓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무인에 해당되는 인물들과 그와 연관된 탁본들을 다수 수록해 놓았다. 『금석집첩』에 수록된 60여 명에 이르는 武人 자료는 그동안 제대로 조명을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2A03068401)

**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받지 못했던 전근대 武人의 삶과 행적을 복원하고 그 가치를 재해석하며, 武人들의 사회문화적 위상과 특질을 이해하는 데에 기초적인 자료로서 널리 활용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金石集帖, 金在魯, 武人, 武臣, 武將, 李浣, 張鵬翼.

1. 들어가며

耳溪 洪良浩는『海東名將傳』서문에서 "천하의 큰 사업은 오직 두 가지이니, 文과 더불어 武일 뿐이다"라고 하면서,『해동명장전』을 저술한 동기와 관련해 "우리 조선의 사대부들로 하여금 文과 武가 본래 두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文과 武의 경중을 서로 조화롭게 해야 함을 깨우쳐 알도록" 하고자 했음을 밝혔다.[1)]

조선은 文治를 위주로 하였다. 물론 조선 초의 경우에는 귀족 가문들이 문무 관리들을 모두 배출하였으며, 다른 양반가와 혼인관계를 맺을 때에도 文武를 차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 武官들은 높은 관직으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며, 文官들을 보좌하는 데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武科의 권위는 추락하였으며, 文班과 武班의 차이는 더욱 심해져서 18세기 즈음에는 양반 중 직계조상이나 8촌 이내의 친척 중에 자신과 文武가 다른 종류의 시험에 합격한 이가 있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중앙 무인귀족 출신의 무과 급제자들은 군사적 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관직만을 받는 경향이 있었다. 무과급제자들이 향후 중앙관료직 중 높은 관직을 받는 것이 제한되었음은 물론이고, 軍營 大將 직위조차 권력 있는 중앙 문관 가문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 대신 벌열 무반들은 소수의 중앙 문인귀족들의 후원을 받으며 정치적으로 충성을 바쳤다.[2)]

文治를 중시했던 조선시대 이래의 역사적 전통과 함께 '武士道'를 제국주의의

1) 해동명장전과 관련해서는 서인원,「이계 홍양호의 역사인식」,『동국사학』29, 동국역사문화연구소, 1995, 91-206면; 최형국,「정조의 문무겸전론과 병서 간행」,『역사민속학』39, 한국역사민속학회, 2012, 101-132면을 참조. 홍양호의 문학과 관련해서는 진재교,『이계 홍양호 문학연구』, 성균관대 출판부, 1999 참조.

2) 유진 박,『조선 무인의 역사』, 유현재 역, 푸른역사, 2018 참조.

발판으로 삼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근대의 기억이 겹쳐서 '武'에 대한 담론이 본격적이며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武'에 대한 재인식, '武'에 대한 담론의 활성화가 현단계 긴요한 과제의 하나라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 논문에서는 일본 교토대학 부속도서관에 소장된 『金石集帖』에 수록된 武人에 관한 자료를 전반적으로 개괄하고자 한다.

2. 『金石集帖』 수록 武人 자료의 현황

일본 교토대학 부속도서관 소장 『금석집첩』은 김재로(1682-1759) 및 그 후손에 의해 편찬된 탁본집으로, 219책, 2,265종의 묘비와 비묘비의 탁본이 전한다. 여기에는 국왕, 왕족의 묘비, 사대부의 신도비·비갈·묘지, 중인, 무인, 서얼, 승려의 묘비, 여성의 비지 등 다양한 계층에 속한 인물들의 금석 탁본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武人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서 무인의 범위는 무관의 직에 있는 사람 또는 무예를 닦은 사람을 뜻한다. 문과에 합격하고 문신으로 관료 생활을 한 인물인데, 무장으로 활약한 경우에는 제외하였다.

『금석집첩』에는 144책부터 148책에 걸쳐 武人을 집중적으로 수록하였는데, 武臣과 武將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44책에 수록된 「李忠武公鳴梁大捷碑」와 같은 사적비는 제외하였고, 인물의 생애를 대상으로 한 금석문을 대상으로 하였다.[3]

[표 1] 『금석집첩』 무인 관련 자료 목록① (144책-148책 소재)

번호	명칭	대상인물	생몰	찬자	한국문집총간 수록 여부
方144	黃莊武公衡神道碑	黃衡	1459-1520	尹昉	x
	鄭統制使起龍神道碑	鄭起龍	1562-1622	宋時烈	『宋子大全』 / 統制使鄭公神道碑銘
	李水使義立神道碑	李義立	1562-1642	宋徵殷	『約軒集』 / 慶尙左道水軍節度使贈兵曹判書李公神道碑銘
	閔統制濟章表	閔濟章	1671-1729	李縡	『陶庵集』 / 統制使閔公墓碣

3) 번호에는 천자문과 일련번호를 썼으며, 명칭은 『금석집첩』 수록 원제목을 간략하게 한 것이다. 심경호, 『한국의 석비와 비지문』, 일조각, 2021에서 정리한 것을 참조하였다.

蓋145	同中樞李公允儉碑	李允儉	1451-1520	金安國	『慕齋集』/ 嘉善大夫忠淸道兵馬節度使李公墓碣銘
	柳判樞節度使墉表	柳墉	16세기	柳重起	x
	柳統制珩表	柳珩	1566-1615	柳忠傑	x
	呂都正摠管裌吉表	呂裌吉	17세기	無陰[4]	x
	原溪君忠肅表	元裕南	1561-1631		x
	金大將應海碑	金應海	1588-1666	趙絅	x
	具判尹鎰表	具鎰	1620-1695	朴世堂	x
	金統制是聲碑	金是聲	1602-1676	權瑎	x
	金左尹世翊碑	金世翊	1642-1698	李德壽	『西堂私載』, 漢城府左尹金公墓誌銘
	張大將鵬翼表	張鵬翼	1646-1735	張泰紹	x
此146	宋鍾城徖表	宋徖	16세기	宋彦愼	x
	平陽君金舜皐表	金舜皐	1489-1574	無陰	x
	花山君權應銖表	權應銖	1546-1608	金世鎬	x
	裵工判裵興立神道碑	裵興立	1546-1608	姜栢年	『雪峯遺稿』/ 嘉義大夫工曹參判兼 五衛都摠府副摠管守知訓鍊院事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五 衛都摠府都摠管知訓鍊院事裵公神道碑銘
	昌興君神道碑	成夏宗	1573-1645	宋時烈	『宋子大全』/ 昌興君成公神道碑銘
	朴水使泓表	朴泓	1534-1593	無陰	x
	申漆谷潳碑銘	申潳	1603-1670	李玄逸	『葛庵集』/ 贈參判申公墓碑銘
	洪北虞候有量表	洪有量	1605-1675	無陰	x
	洪北虞候有量碣	洪有量	1605-1675	南九萬	『藥泉集』/ 咸鏡北兵虞侯洪君墓碣銘
	李統制使澤神道碑	李澤	1651-1719	尹鳳朝	『圃巖集』/ 統制使李公神道碑銘
身147	柳統制使琳神道碑	柳琳	1581-1643	南九萬	『藥泉集』/ 統制使柳公神道碑銘
	李知樞衛將汝發神道碑	李汝發	1621-1683	朴世堂	『西溪集』/ 韓興君李公神道碑銘
	李工判訓將基夏神道碑	李基夏	1646-1718	尹淳	x
	羅左尹御將弘佐神道碑	羅弘佐	1649-1709	崔錫鼎	『明谷集』/ 漢城左尹羅公神道碑銘
髮148	守知中樞李秉正碣	李秉正	1438-1515	李思鈞	x
	李平安兵使思曾碣	李思曾	1493-?	洪天民	x
	元統制使均表	元均	1540-1597	無陰	x
	吳兵使捕將定邦碑銘	吳定邦	1552-1625	李景奭	『白軒集』/ 慶尙右道節度使吳公神道碑銘
	李兵使景顔表	李景顔	1581-1656	李行成	x
	嚴水使摠管愧碣	嚴愧	1580-1653	李敏求	『東州集』/ 水軍節度使嚴公墓碣銘
	金北兵使俊龍神道碑	金俊龍	1586-1642	許穆	『記言』/ 贈左贊成金公神道碑銘
	李金海泰英表	李泰英	1631-?	黃世楨	x
	田營將始元表	田始元	1677-?	金在魯	x

4) 陰記가 없는 경우 '無陰'으로 표시하였음.

위에서 보듯이, 『금석집첩』 144책에서 148책까지 36명의 武人이 한곳에 모아져 있다. 이 무인들은 모두 조선시대 인물들이다. 『금석집첩』의 목록집에 해당하는 고려대 소장본 목록집 『金石錄』에 이 금석문들을 33개의 항목별로 구분하여 놓았다. 그리고 『금석집첩』 書根題에도 항목 구분 표시를 적어놓았다. 이들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文臣의 경우에는 '正卿', '亞卿', '文堂', '名臣', '勳臣' 등 매우 세분된 여러 항목에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武人의 경우에는 '武將/武臣'의 항목 하나만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 144책에는 무장과 무신을 구분하지 않고, '黃壯武', '鄭起龍'과 같이 표기를 하였다. 그리고 145책은 武將, 146책은 武臣, 147책은 武將, 148책은 武將, 武臣의 세부 항목을 표기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되지 않은 신자료들이 『금석집첩』에는 대거 수록되어 있다. 이들 신자료는 전근대시대 武人의 삶과 행적을 추적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이 중에서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李基夏(1646-1718)에 관한 자료를 살펴본다.

이기하는 자가 夏卿, 본관이 한산이다. 부친은 어영대장을 역임하였던 李汝發이다. 門蔭으로 출사하여 三道水軍統制使, 捕盜大將, 訓練大將, 총융사 등 여러 무관직을 역임했다. 이기하에 대한 글로 李德壽가 지은 「工曹判書兼知訓鍊院事李公墓誌銘」이 『西堂私載』 권10에 수록되어 있다. 『금석집첩』에 수록된 李基夏의 神道碑는 尹淳이 비문을 짓고, 徐命均이 글씨를 썼으며, 曹命敎가 篆額을 하였다. 『금석집첩』에 수록된 제목은 「有明朝鮮國資憲大夫工曹判書兼知訓鍊院事五衛都摠府都摠管韓城君 贈諡貞僖李公神道碑銘幷序」이다. 尹淳의 사후 200여 년이 지나 석인본으로 간행된 『白河集』에는 윤순이 지은 이기하의 신도비가 빠져 있다. 1927년에 석인본으로 간행하면서 이 글이 누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석집첩』에 수록된 이기하의 신도비 중에서 일부를 들어본다.

> 왜구에 대한 경보가 있자, 조정에서는 북한산에 성을 쌓을 것을 의논하였다. 공은 여러 번 도성을 지키는 것에 전념할 것을 청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이 국내를 두루 살피건대 도성만한 곳이 없사옵니다. 전하께서는 너무 넓어서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하시지만, 도성 6000堞에 堞마다 5명씩을 세워 3만 명이면 족할 것입니다. 살펴보건대 지금 도성의 백성이 11만 명이온데,

> 여기에 각 영의 병졸을 보탠다면 성이 도리어 작다고 생각되오니, 먼저 도성을 쌓아 근본 계책으로 삼는 것만 한 것이 없사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은 여전히 이를 어렵게 여겨 마침내 북한산성을 쌓았다.[5]

海寇에 대한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기하는 도성 방어에 전념할 것을 숙종에게 주청하였다. 숙종 때에 한양도성을 축성하자는 의견과 북한산성을 축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졌다. 이기하는 훈련대장에 임명된 후 한양도성의 취약점을 보완할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며, 한양 성곽의 축조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가 財用을 고갈시킨다는 이유로 사간원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위의 인용글에서 숙종에게 한양도성의 방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강력하게 주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숙종은 한양도성을 보수, 축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북한산성을 군인들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축성하였다. 이기하는 숙종의 총애를 받아 20여 년간 군대통수권을 장악한 福將으로 평가되었다.

144책부터 148책까지 수록된 武人의 경우에는 한 곳에 모아져 있는데, 이와 달리 『금석집첩』 내의 다른 항목들 속에 무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들이 분산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금석집첩』 무인 관련 자료 목록② (144책-148책 이외 소재)

번호	항목	명칭	대상인물	생몰	찬자	한국문집총간 수록 여부
結038	死節	壯節申公忠烈碑	申崇謙	?-927	申欽	『象村稿』 / 高麗太師壯節申公忠烈碑
	死節	水使李公神道碑	李大源	1566-1587	南九萬	『藥泉集』 / 全羅左水使李公神道碑銘
	死節	申巡邊使碑	申砬	1546-1592	宋時烈	『宋子大全』 / 都巡邊使 贈領議政平陽府院君申公墓碣銘
	死節	李忠武神道碑	李舜臣	1545-1598	金堉	『潛谷遺稿』 / 李統制忠武公神道碑銘
	死節	靑興君李公表	李重老	1577-1624		X
爲039	死節	金忠武公表	金應河	1580-1619	無陰	X

5) 尹淳, 「有明朝鮮國資憲大夫工曹判書兼知訓鍊院事五衛都摠府都摠管韓城君 贈諡貞僖李公神道碑銘幷序」, 『金石集帖』 身147. 海寇有警, 朝議城北漢. 公屢請專意都城曰, "臣遍觀八路, 無如都城. 聖意雖慮太濶難守, 都城六千堞, 堞立五人, 三萬人足矣. 見今都民十一萬, 添以各營兵卒, 臣恐城反爲小, 莫如先築都城爲根本計." 上猶難之, 竟築北漢.

麗043	死節	韓川君李公神道碑	李義培	1576-1637	崔錫鼎	『明谷集』/ 節度使韓川君李公神道碑銘
	死節	南忠壯公神道碑	南以興	1576-1627	許穆	『記言』/ 宜春君碑
水044	死節	南羅州碑銘	南瑜	1552-1598	李栻	x
李059	相臣	右相李公神道碑	李浣	1602-1674	宋時烈	『宋子大全』/ 右議政李公神道碑銘
	相臣	右相李公表	李浣	1602-1674	宋時烈	『宋子大全』/ 右議政李公墓表
帝076	正卿	忠定張公神道碑	張晩	1566-1629	張維	『谿谷集』/ 竭誠奮威出氣效力振武功臣 輔國崇祿大夫行議政府右贊成 玉城府院君張公神道碑銘
良168	前朝人	新羅角干金公表	金庾信	595-673	南至薰	x
	前朝人	太傅威烈金公表	金就礪	1172-1234		後孫 金致龍 改刻
	前朝人	上洛金忠烈公表	金方慶	1212-1300	李時發	『碧梧遺稿』/ 高麗宣忠協謀 靖難定國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 上洛忠烈公金方慶墓誌
	前朝人	羅侍中表	羅天瑞	14세기		x
知169	前朝人	原州府院君表	邊安烈	1334-1390	朴承任	『嘯皐集』/ 高麗國推忠亮節宣威 翊贊補祚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 領三司事原川府院君邊公墓表
必171	前朝人 /國朝人	洛成君金公表	金先致	1318-1398	金演	x
改172	前朝人	申按廉使表	申祐	14세기	鄭經世	『愚伏集』/ 高麗按廉使申公墓表
	前朝人	呂大將軍表	呂林淸	10세기	宋浚吉	『同春堂集』/ 高麗大將軍呂公墓表
	前朝人	林將軍神道碑	林蘭秀	1342-1407	宋時烈	『宋子大全』/ 林將軍神道碑
使186	戰功	忘憂堂郭公神道碑	郭再祐	1552-1617	許穆	『記言』/ 忘憂堂郭公神道碑銘
欲190	前朝宰相	高麗壯節申公表	申崇謙	?-927	無陰	후손 申翼壽 立石
染196	武臣	李長湍表	李悟	18세기	金在魯	x
羔199	武正卿	兵判壯武申公表	申汝哲	1634-1701	俞拓基	『知守齋集』/ 判中樞府事莊武申公墓表
建210	勳武	李制置使表	李行儉	15세기	李世最	x

[표 2]에 나오는 무인은 25명에 이른다. 삼국통일시대의 인물은 金庾信이 있으며, 고려 시대 인물로는 申崇謙, 金就礪, 金方慶, 羅天瑞, 邊安烈, 金先致, 申祐, 呂林淸, 林蘭秀 등이다. 대개 '前朝人' 항목 속에 분류된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앞서 살펴본 무인과 모두 합쳐보면 대략 60여 명이 수록되어 있는 셈이다. 1608년부터 189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武科를 통해 총 12만 845명의 급제자를 배출한 통계를 고려하였을 때에 『금석집첩』에 수록된 60여 명의 武人은 결코 많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무인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표 1], [표 2]에 나와 있는 60여 명보다 그 숫자는 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목을 세분하여 수록해 놓은 文班 소속 인물에 비해 무인의 숫자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금석집첩』은 武臣과 武將의 항목을 독립하여 설정함으로써 무인들을 한곳에 모아놓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에서도 武人에 해당되는 인물들과 그와 연관된 탁본들을 다수 수록해 놓았다. 『금석집첩』에 수록된 이들 武人 자료는 그동안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던 전근대 武人의 행적을 복원하고 그 가치를 재해석하는 데에 기초적인 자료로서 널리 활용될 필요가 있다.

전근대 시대 무인을 대상으로 독립된 저술을 한 것은 洪良浩의 『海東名將傳』이 대표적이다. 『해동명장전』은 삼국시대부터 조선 인조대까지의 명장들의 전기를 모아 편찬한 책이다. 55명에 이르는 명장의 뛰어난 행적을 서술한 『해동명장전』은 무장의 전기를 모아 편찬한 저술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문치를 숭상하고 국방과 무위를 소홀히 하여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전란을 맞이했다고 진단하면서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문무 겸비의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이 책을 저술했다고 말했다.

『해동명장전』 이후 이같은 전통을 이어받은 저술은 한동안 나오지 않았으며, 安廓이 1940년에 간행한 『朝鮮武士英雄傳』[6]이 그 맥을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안확은 이 책에서 文武 正反合의 과정으로 한국의 역사를 5기로 구분하였다. 三韓시대는 文武合의 시대로 보았고, 三國시대의 경우에 北方은 武, 南方은 文으로 양분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新羅시대는 文武合의 시대로, 이어서 高麗시대는 武의 시대로, 다시 조선시대는 文의 시대로 각각 구분하였다. 安廓은 武士道의 성쇠에 따라 文과 武의 正反合의 과정으로 지나온 역사를 총괄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를 개괄하는 글에서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 李朝一代에는 文治를 爲主하고 武道는 後從으로 하였음으로써 高官大爵은 모두 文士가 차지한지라. 고로 五百年來에 大臣數爻는 凡三百六十五人을 算出하게 되는데, 其中에 科擧出身이 아닌 所謂南行으로 된 大臣은 二十五人이 되고 武士로서

6) 安廓, 『朝鮮武士英雄傳』, 明星, 1940.

昇職하여 大臣된 者는 겨우 七人밖에 아니된다.
이 七大臣이 난 것도 國家의 가장 大事인 戰爭에 就하여 莫大한 勳功이 있음으로써 不得已한 境遇로 除授한 것이오 武士의 能力 또는 武力의 價値를 尊重함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7]

조선은 文治를 위주로 한 시대였으며, 고위 관직은 모두 문관들이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 이 점을 증명하고자 했는데, 고위 관직 365명 중에서 음직 출신은 25명, 무관 출신은 7명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 7명은 趙英茂, 崔潤德, 洪達孫, 朴元宗, 申景禛, 具仁垕, 李浣이었다.

3. 『金石集帖』 수록 武人 자료의 비교 검토: 李浣과 張鵬翼을 중심으로

『금석집첩』에 수록된 무인 중에서 李浣과 張鵬翼을 중심으로 하여 『금석집첩』에 수록된 글과 여타 문헌에 등장하는 글을 서로 비교 검토해 보기로 한다.

무과급제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예상 외의 승진을 하기도 했다. 1402년부터 1591년 사이에 최고귀직에 오른 무관이 네 명이었던 것에 비해, 1592년부터 1894년 사이에는 단지 세 명의 무관만이 최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다. 이들 세 번의 경우는 모두 17세기에 일어났다. 영의정에 오른 申景禛(1600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1642년 영의정에 오름), 좌의정을 역임한 具仁垕(1603년 무과에 급제하여 1653년에 좌의정에 오름), 그리고 여기에서 살필 우의정 李浣(1624년 무과에 급제하여 1674년에 우의정에 오름)이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서인이었으며, 왕위를 보필하는 위치에 있었다.[8]

무과 급제자 가운데 軍營 장군직에 오른 사람은 매우 적었다. 『조선 무인의 역사』에 따르면, 조선후기 무과급제자 27,367명 중에서 단지 123명, 즉 0.5%만이 군영 장군직을 획득하였다.[9] 훈련도감, 총융청, 수어청, 어영청, 금위영 등이다. 이 중에서 금위영은 숙종 때에 송시열 등의 건의로 설치되었으며, 병조판서가 최고위직을 겸임하였다. 李浣(1602-1674)은 훈련대장,

7) 安廓, 『朝鮮武士英雄傳』, 明星, 1940.
8) 유진 박, 『조선 무인의 역사』, 유현재 역, 푸른역사, 2018 참조.
9) 유진 박, 같은 책, 주석 242번 참조.

어영대장 등의 무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문헌에 기록된 李浣 관련 자료를 선별해서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문헌 수록 李浣 관련 자료 일람

번호	제목	문체	작자
1	右議政李公神道碑銘幷序	神道碑	宋時烈
2	右議政李公墓表	墓表	宋時烈
3	祭李右相文	祭文	尹鑴
4	李右相挽	挽詞	李端夏
5	右議政李公謚狀	謚狀	李端夏
6	右議政李公墓誌銘幷序	墓誌銘	南龍翼
7	李相國遺事	遺事	李選
8	相國李公浣挽詞	挽詞	金萬基
9	李相國浣挽詞	挽詞	李玄錫
10	明陪臣傳	傳	黃景源
11	貞翼公李浣墓致祭文	致祭文	正祖
12	李貞翼傳	傳	成海應
13	記貞翼李公事	記事	成海應
14	挽李右相	挽詞	李元禎

『金石集帖』에는 李浣 자료로 「右相李公神道碑」과 「右相李公表」 두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撰者는 모두 尤庵 宋時烈이다. 『宋子大全』에 권 158에 「右議政李公神道碑銘」과 권 190에 「右議政李公墓表」로 수록되어 전한다. 그 가운데 「右議政李公神道碑銘」은 총 분량이 6,300자에 이르는 장편이다. 이에 비해 「右相李公表」는 416자밖에 되지 않은 짧은 분량인데, 북벌계획을 실천하는 데에 힘을 합쳤던 효종과 이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이완이 무공을 세웠던 일화 중에서 병자호란 당시 金自點 휘하에서 있었던 장면을 인용해 본다. 병자호란 당시 金自點이 원수의 직책을 맡아 정방산성을 지키고 있었으며, 이완은 그 휘하의 別將으로 있었다.


瑞山鄭氏祔左

[그림 1] 『金石集帖』에 수록된 李浣의 墓表

적의 騎兵 3, 4백 명이 과연 먼저 이르자, 자점이 성 위에서 북을 울리고 기를 들므로, 공이 사람을 시켜 보고하기를, "이것이 바로 先鋒이니, 반드시 大陣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저들과는 싸워서 이긴다 할지라도 얻는 것은 적고 잃는 것은 큽니다." 하였으나, 자점이 듣지 않았다. 공은 끝내 군사를 움직이지 못하게 단속하면서 말하기를, "大事의 성패가 이 한 번의 거사에 달려 있으니, 죽어도 감히 따를 수 없습니다." 하니, 자점이 더욱 노하여 임금이 하사한 尙方劍을 부하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李某 이하를 모두 목 베어 오라." 하였다.

공이 분격하여 말하기를, "大事는 이미 틀려 버렸다." 하고는, 드디어 전진하여 적을 유도하니, 적이 우리 군대의 單弱함을 보고 즉시 쫓아오므로, 공이 전진 후퇴를 거듭하는 사이에 騎將 金應海가 적에게 포위되어 위급하자, 공이 황금빛의 갑옷에 白馬를 탄 虜人 한 사람을 쏘아 떨어뜨림으로써 김응해가 위기를 면하게 되었다. 드디어 김응해와 함께 적을 유인하여 산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 대포를 발사하자, 伏兵이 일제히 분격하여 적이 크게 패배하였다. 공이 군사들을 수합하여 城에 들어가니, 성안에서 凱歌를 부르며 서로 축하를 하였으나, 공은 도리어 失計했다고 탄식하였다.10)

도원수 김자점과의 갈등과 대립을 거듭했던 점을 부각시켜 이완의 영민함과 용맹스러움을 부각시켰다. 12만 명의 군사를 거느린 후금의 대대적인 침략에 맞서 정방산성을 방어하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요해처에 복병을 숨겨놓고 적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도원수 김자점은 기병 3, 4백 명이 달려오자 공격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완의 판단은 달랐다. 지금 쳐들어오는 기병은 선봉에 지나지 않고 그 뒤를 이어 大陣이 올 터이니 그때 일거에 적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격하라'는 상관의 명을 거부한 채 이완은 자기 부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전장에서 "李某 이하를 모두 목 베어 오라"는 도원수의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서 이완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가서 적을 패퇴시키고 포위되었던 金應海를 구출하여 돌아왔다. 이완은 일시적인 승리에 불과할 뿐 '失計'했음을 탄식하였다.

그 다음날 이어지는 전투에서도 이완과 김자점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김자점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복병을 두어 적을 공격하고자 했지만, 이완은 어제 살아간 적이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복병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10) 宋時烈, 「右相李公神道碑」, 『金石集帖』 李59.

하면서 이에 반대하였다. 하지만 김자점은 끝내 고집을 세워 복병을 매복시켰고 적의 역습을 받아 크게 패하였다.

> 날이 밝자 元帥에게 나아가 일을 의논하는데, 적이 갑자기 몰려와 어지러이 軍門으로 쳐들어오므로 자점은 급히 도주하여 산으로 올라갔고 공은 산중턱까지 걸어 올라가서 角笛을 불어 군사를 부르니, 흩어진 군사가 모인 것이 겨우 50, 60인이었다. 이리하여 이들을 모아 圓陣을 치고 밖을 향하여 있으므로 적들이 원수인 줄 알고 10겹으로 포위하자, 공이 군사를 시켜 돌려가면서 砲를 발사하게 하였는데, 아침부터 한낮에 이르러 적의 공세가 더욱 급박하여졌다. 軍官 尹至倫은 勇士였는데, 이때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서 공에게 적진을 충돌하여 헤치고 나가기를 청하자 공이 말하기를, "여기가 나의 죽을 곳이다." 하고는, 이내 공이 적으로부터 화살 세 대를 맞고 정신이 아득하여 넘어졌다. 마침 敗馬가 뛰어 도망가면서 그곳을 지나므로, 공이 몸을 날려 그 말에 뛰어올라 나는 듯이 달려서 山頂에 도착하여 원수와 만나게 되었으니, 이는 신명이 도운 것이다.

후금의 대군과 치열하게 맞서 전투를 벌였지만 중과부적으로 패하였다. 이때 도원수 김자점은 도주하여 산으로 올라갔고, 이완은 남은 군사 50, 60인을 모아 圓陣을 치고 끝까지 항전하였다. 군관이 포위망을 뚫고 적진을 돌파하자고 하였지만, 이완은 '여기가 나의 죽을 곳이다'라고 말하고는 결사항전을 하다가 결국 화살을 맞고 쓰러졌으나 다행히 패전한 말을 타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작자는 이완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후금과의 전투에서 용맹과 지략을 겸비한 장수로서의 면모를 크게 강조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도원수 김자점의 용렬함과 비겁함에 대비시켜 勇將과 智將으로서 李浣의 형상을 부각시켰다.

이후의 서술에서는 효종이 "경과 송시열 두 사람이 한마음으로 함께 국사를 도모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한 말을 통해 작자는 효종을 곁에서 보필하며 북벌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자 했던 이완의 형상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재위 11년 만에 효종이 승하하고 북벌 계획도 더 이상 실현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이완에 대해 작자는 "공은 비통해 마지않으면서 목숨을 부지하여 살고 싶지 않았으며, 喪이 끝난 뒤에도 상의 일에 언급만 되면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하여 효종과 이완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여 서술하였다. 이 무렵에 이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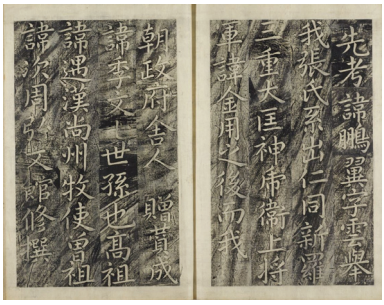
지은 시조 작품이 진본『청구영언』등 많은 시조집에 빠짐없이 등장한다.

君山을 削平턴들 洞庭湖ㅣ 너를랏다
桂樹를 버히던들 달이 더옥 발글 거슬
뜻 두고 이로지 못하고 늙기 셜워 하노라.

초장과 중장에서는 북벌책의 당위성을 노래하였고, 마지막 장에서는 효종의 승하로 인하여 북벌의 계획이 좌절되어 본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였다. 우암 송시열은 신도비의 마무리 부분에서 이완이 한 말을 인용하였는데, 북벌을 둘러싸고 효종과 의견의 차이를 보였던 작자의 의중을 은연중에 담아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우암 신도비에 나타난 이완의 형상은 후금(청)이라는 이민족에 맞서 불굴의 의지와 용맹을 떨쳤던 장수이며, 효종의 뜻을 이어받아 북벌 계획을 실천하고자 했던 충직하고 믿음직한 신하로서 그려져 있다.[11]

李浣보다 뒷세대의 인물인 張鵬翼(1646-1735)은 포도대장을 역임했던 武官으로 유명하였다. 특히 검계 조직을 소탕하였던 서슬 퍼런 포도대장의 위압감이 대단했던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다.『金石集帖』에는 장남 張泰紹가 찬한「張大將表」가 수록되어 있다.


[그림 2] 金石集帖에 수록된 張鵬翼의 墓表

장붕익의 가계, 관력을 기술한 다음 무덤을 조성한 경위와 자손에 대해 기술하였다. 특히 관력을 서술할 때에 "前後踐歷, 率多重經, 三掌御營, 四領訓局."이라고 하여 어영대장을 세 차례 역임하고, 훈련대장을 네 번 지냈던 점을 특별하게 부각하여 서술하였다. 두 아들을 두었는데,

11) 이같은 이완의 형상은 야담집 및 구비 설화를 통해 후대에 전승되면서 달라진 모습으로 기억되고 공유되었다.『청구야담』을 비롯한 각종 야담 및 필기류에 이완의 이야기가 여러 형태로 수록되어 있으며,『한국구비문학대계』에도 이완과 관련된 구비 설화가 20여 종 전하고 있을만큼 전승 집단의 구연 대상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이 이야기들은 역사적 사실에 비교적 충실한 것도 있는 반면, 허구적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흥미성을 배가시킨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 墓表를 작성한 장남 장태소 또한 무과에 급제하여 이 표를 쓸 당시 平安兵使를 지냈다. 그리고 장태소에게는 3남 4녀가 있었는데, 훗날 훈련대장에 오른 張志恒은 바로 장태소의 아들이었다.

墓表의 마무리 부분에서 "碑面只書上將軍, 卽府君遺意. 若其本末事績, 當有神道碑刻焉"이라고 하였는데, 비제를 '朝鮮國上將軍張公鵬翼之墓'라고 한 이유가 장붕익의 유언에 따른 것임을 밝혔고, 장붕익의 자세한 행적은 도곡 이의현이 작성한 신도비에 나와 있다고 하였다. 장붕익은 묘는 개성군 풍덕면에 위치해 있다. 『松泉筆談』에는 이정만이라는 사람이 장붕익에게 將軍穴을 점지해준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실제로 장붕익과 장태소, 장지항으로 이어지는 삼대가 모두 포도대장을 역임하였다.

장태소가 찬한 묘표는 간략한 기술에 머물기 때문에 이의현이 쓴 신도비를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 공은 玉城府院君 張公(張晩)의 族孫인데 평생 거쳐 온 관직이 장공과 매우 비슷하였으며 사람됨이 굳세고 지략이 풍부한 점 또한 같았다. 그러나 처한 시대는 옥성부원군의 때와 매우 달라서 호랑이 꼬리를 밟는 것처럼 위태로웠던 상황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니 공의 입장에서 처신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었다.
>
> 공은 조정에서 역적을 너무 느슨하게 처벌한 탓으로 그들의 악행이 멈추지 않는 것을 보고 매번 천장을 우러러보며 속으로 탄식하였다. 이에 명령을 내려 일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전후로 철저히 알린 뒤에 단호하게 시행하기를 힘썼다. 이 때문에 공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적들이 두려워하며 감히 제멋대로 날뛰지 못하였다. '公侯干城'이라는 옛말이 있는데 공이 참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다.[12]

문부겸비의 장수로 알려진 張晩은 본래 문과에 합격한 이후 무장으로서 활약을 펼쳤던 인물이다. 장만과 장붕익은 평생의 관직이 비슷하고, 사람됨이 굳세고 지략이 풍부한 점에서 같았음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두 사람이 처했던 상황은 크게 달랐으니, 장붕익은 호랑이 꼬리를 밟는 것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을 마주 대해야 했다. 장붕익이 활약했던 시기는 경종과 영조대이다.

12) 李宜顯, 「刑曹判書張公神道碑銘」, 『陶谷集』 권11, 『한국문집총간』 181, 48면.

당파 간 알력이 심했으며, 특히 영조의 즉위 과정을 둘러싼 노소론 간의 대립이 격화되었으며, 영조 초반의 무신란은 그 극점이었다.

또 하나 위의 글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장붕익과 이인좌 등 반란군 사이의 적대적 관계를 부각시켰고, 이인좌의 난을 평정한 뒤에 그 일당을 처벌하는 과정에서의 느슨함을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장붕익의 인물됨을 '단호하게 시행하기를 힘썼다'는 문장 속에 압축시켜 놓았다. 후대 문헌에 수록된 이야기에서는 장붕익과 劍契 사이의 관계가 부각되어 있으며, 이인좌의 난을 평정한 뒤에 공신에 오르지 못한 점을 기록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의현이 쓴 신도비에서는 검계가 아니라 역적, 즉 이인좌의 반란군과의 적대적 관계를 강조하였고, 검계 조직의 소탕에 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다.

① 총융사 金重器가 역적들과 내통한 행적이 드러나자 공에게 그 임무를 대신하도록 하니 공이 符節을 받들고 가서 京畿左道를 다스렸다. 그러자 역적들이 공을 두려워하여 사잇길로 도망갔다. 공이 역적들의 장수 李培를 사로잡아 檻車에 실어 서울로 압송해 처형하고, 또 역적을 인도하거나 적에게 부응한 자들을 체포해 차례로 처형한 뒤에 시신은 거적에 말고 목은 나무에 매다니 역적들이 모두 평정되었다.

얼마 뒤에 어영대장으로 옮기고 다음해에 특별히 한성부 판윤으로 승진하였으며 또 다음해에 다시 훈련대장이 되었으니, 이는 성상의 은혜가 점점 융숭해진 것이다. 그러자 시기하는 자들이 그치지 않아 몰래 자객을 보내어 기어코 공을 살해하려고까지 하였다. 만일 밝은 성상이 위에 계시지 않았다면 공은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13]

② 張鵬翼은 외모가 굳세고 용맹스러웠다. 명령을 호령함이 엄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금지하는 것을 범하는 이가 없었다. 무신년(1728) 이인좌의 난에 장붕익은 김중기를 대신하여 총융사가 되어 수원부로 출진하였다. 적장 이배는 힘과 용맹이 매우 뛰어났는데, 백성들에게 붙들려서 장붕익의 진영으로 호송되었다. 장붕익은 서울로 그를 호송해 올려보냈다. 그러나 어영대장과 훈련대장은 궁성을 호위하고 민심을 진정시키고는 한 발짝도 궁성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적의 머리를 하나도 베어 바친 적이 없었다. 그들이 과연 녹훈의 은전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張鵬翼은 공적에서 누락당하자 원통함이 심하였다. 그가 죽기 하루 전에 큰 별이

13) 李宜顯, 「刑曹判書張公神道碑銘」, 『陶谷集』 권11, 『한국문집총간』 181, 48면.

갑자기 떨어져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았다. 장붕익이 죽은 이후로 그처럼 용맹한 무장이 다시는 없었으니, 애석하도다.14)

①은 이의현의 신도비에 나오는 일화이며, ②는 『左溪裒談』에 수록된 일화이다. ①에서는 이인좌의 난 때에 적장 李培의 적장을 체포해 서울로 압송하는 등 큰 활약을 한 점을 부각시켰던 것에 비하여, ②에서는 이인좌의 난을 평정한 공적에서 누락된 원통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죽기 하루 전에 큰 별이 갑자기 떨어지는 신비로운 자연 현상을 통해 용맹한 무장의 죽음을 애석해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또한 ①에서는 정치적 알력으로 인해 그를 시기하는 무리가 자객을 보내 살해하고자 한 점을 서술했는데, 李奎象이 쓴 「張大將傳」에서는 검계 조직이 그를 살해하고자 했던 것으로 바뀌어 있다.

李奎象은 『幷世才彦錄』 「椒林錄」에서 훈련대장 장붕익의 위용을 서술하였으며, 「장대장전」에서는 장붕익의 행적을 생동감 있는 필치로 입전하였다. 이규상은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집안의 행장 등도 참고하지 않고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통해 작품을 구성하였는데, 장붕익의 행적과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들을 배치해 놓았다. 문신 관료와의 갈등을 보여주는 일화가 그 중의 하나이다. 장대장에게 모욕을 준 문신을 골탕먹인 일화, 절도사를 만나려고 오래 기다렸다가 절도사가 애완동물로 키우는 학을 걷어차 죽이는 바람에 벼슬길이 몇 년 동안 막혔던 일화는 문관과 무관의 갈등과 견제를 잘 드러내는 이야기이다.

장 대장이 전주 영장이었을 때에 전라감사를 알현했는데, 전라감사는 고귀한 문신이라 해서 매번 오만하게 굴었다. 장 대장이 또 아침에 알현하러 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오래 기다리고 있었다. 전라감사의 정원에 사는 학이 문에서 나오다가 장 대장을 보더니 부리로 쪼았다. 장 대장이 "너 따위 새까지 사또처럼 높은 줄 아느냐?"하고 걷어차 학을 죽여 버렸다. 장 대장은 이 때문에 벼슬길이 몇 년 동안 막혔다고 한다.

장 대장이 판서에 올라 軺軒을 탔는데, 초헌은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오직 문신

14) 『左溪裒談』 人, 10화.

재상만이 탈 수 있었다. 마침내 臺臣들이 주장하여 그 가마를 매달아 놓고 볼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15)

전라감사가 애완동물로 키우던 학을 걷어차 죽인 일화는 『승정원일기』 영조 4년(1728) 3월 15일에도 소개되어 있다. 당시 전라감사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은 權尙游(1656-1724)였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장붕익을 후하게 대우하고 있던 권상유가 장붕익을 만났을 때에 장붕익이 술을 마시고 상관에게 말을 함부로 하여 책망하였더니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면서 학을 발로 차 어깨를 부러뜨렸다고 하였다. 아랫사람이며 무관이었던 장붕익이 술을 마시고 무례하고 거친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기록해 두었다. 하지만 이규상의 전에 따르면, 지위가 높은 문신으로서 아랫 사람인 무관을 오만하게 대접한 점을 특기함으로써 문관과 무관 사이의 대립, 무관을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문관에 초점을 맞추었다. 동일한 사건이지만, 그것을 기록하고 傳言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함을 볼 수 있다.

이규상이 이어지는 일화에서도 무관에 대한 문관의 차별적 대우를 다시 한번 서술하였다. 병조판서로 임명된 장붕익은 종2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탈 수 있는 軺軒으로 입궐을 하였다. 이에 대해 臺臣들은 오직 문신 재상만이 軺軒을 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장붕익은 軺軒을 매달아 놓고 볼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계서야담』, 『동패낙송』, 『동야휘집』 등에 수록되어 있는 兪拓基와의 일화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장붕익이 한성판윤 겸 훈련대장으로 임시로 가져다 놓은 안석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당시 대간으로 있던 유척기가 늦게 도착하였다. 대청 가에까지 와서는 도로 내려가서 작은 사랑채로 가서 앉았다. 거기서 훈련원의 아전을 불러 분부하였다. "대청 위에 담뱃대를 가로 물고 안석에 기대있는 높으신 어른은 누구신가?" "훈련대장 나으리시옵니다." 그러자 유척기가 꾸짖었다. "오늘 같은 공식적인 모임에 무장이 어찌 감히 이렇듯 무례한가?" 이 말을 듣고 장붕익은 즉시 담뱃대를 던져 버리고 일어나며 말했다. "가야겠구나" 하고는 눈살을 한번 찌푸리며 망건을 쥐어 뜯어버렸다.16)

15) 李奎象, 「張大將傳」, 『一夢稿』(규장각 소장본) 권12.

한성판윤 겸 훈련대장이었던 장붕익이 담배를 피우며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본 兪拓基가 무장으로서의 무례한 행동을 호되게 질책하자, 장붕익 또한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지 않고 담뱃대를 던져 버리고 눈살을 찌푸린 채 망건을 뜯어버렸다. 뒤에 장붕익이 유척기를 만나 그때 당시의 행동을 사과하고 두 사람이 화해를 했다고 기술했지만, 이 일화 또한 장붕익의 거리낌 없는 행동과 함께 문관과 무관 사이의 알력과 대립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규상이 「장대장전」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묘사하고자 했던 점은 장붕익의 호쾌한 풍모였다. 예컨대 노량진에서 장붕익이 군사들을 훈련시킬 때에 돼지 떼가 진중을 지나갔다. 장붕익이 발포하여 돼지를 죽이고 돼지 주인에게 값을 후하게 쳐주었다. 그 후에 돼지 장사꾼이 일부러 큰 무리를 풀어 진중에 난입하였는데, 장붕익이 발포하여 모두 죽이고 진중 밖으로 던져 버리게 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일화는 『송천필담』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호탕하고 거침없는 무장으로서의 풍모를 잘 보여준다.

다음 일화는 검계 조직을 소탕한 장붕익에 대한 유명한 대목이다.

> 지난해 내가 한양성 서쪽의 사랑채에서 만나보니 表鐵柱는 여전히 눈가에 사납고 불평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내가 "자네는 제멋대로 구는 사람이니 한평생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겠나?"라고 물었다. 표철주는 한참 귀를 기울이다가 쭈글쭈글한 입술을 삐죽이며 몸을 날려 쇠가래를 곧추세우고 "장 사또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라 말하고, 또 크게 웃으며 "내가 죽지 않는 것은 지하에서 장 사또를 만나기 싫어서지요"라 하였다. 또 검계 사람들의 일을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고는 "수많은 호걸들을 장 사또가 모조리 죽여 버렸지요"라 하였다.[17]

표철주는 한양에서 집을 사고 팔 때에 중간에서 거래를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거간꾼이었다. 작자 이규상이 표철주를 만났을 때에 그의 나이는 70세가 넘어 귀가 먹고 이가 빠져 있었다. 젊은 시절 기방에 출입하며 호기를 부렸던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표철주의 과거 회상을 통해 검계를 소탕했던

16) 「謝兪臺執法」, 『東稗洛誦』.
17) 李奎象, 「張大將傳」, 『一夢稿』(규장각 소장본) 권12.

장붕익을 떠올리게 되는데, 장면 묘사가 흥미로우며, 호쾌했던 장붕익의 젊은 시절 모습을 독자로 하여금 상상하게 한다.

『동패낙송』 등의 야담집에 전하는 장붕익 이야기 중에서 그의 충정과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들이 다수 전한다. 어머니가 가난해 술지게미를 먹는 것을 보고 발분하여 붓을 던지고 무과 시험에 뽑혔고, 그 후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을 때에 갑옷을 입고 영조의 침전 밖을 지켜서 영조가 비로소 잠자리에 들었다는 일화, 충역의 구분에 엄격하여 소론계 인물인 李光佐를 부를 때에는 성을 빼고 불렀다는 일화, 창원부사 재임시 장사꾼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내가 찔려 죽자 그 범인을 색출하여 체포한 일화 등에서 장붕익의 또 다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야담과 필기에 전하는 장붕익의 호쾌하고 거침없는 풍모는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동화작가로 유명한 延星欽에 의해 포도대장으로서의 용맹함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 童話로 창작되기도 하였다. 1930년에 「장붕익의 용맹」으로 발표한 역사 童話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뱀을 퇴치하는 장붕익의 용맹과 지혜를 그리고 있다.

4. 마무리

조선시대 武人의 존재에 대해서는 李舜臣, 林慶業 등 소수의 인물 정도만이 알려져 있으며, 그 밖에 임진왜란이나 정묘호란 등에서 활약한 의병장이나 장수 정도가 알려져 있다. 文治를 중시했던 조선시대 이래의 역사적 전통과 함께 '武士道'를 제국주의의 발판으로 삼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근대의 기억이 겹쳐서 '武'에 대한 담론이 본격적이며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武'에 대한 재인식, '武'에 대한 담론의 활성화가 현단계 긴요한 과제의 하나라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 논문에서는 일본 교토대학 부속 도서관에 소장된 『金石集帖』에 수록된 武人에 관한 자료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금석집첩』은 武臣과 武將의 항목을 별도로 설정하여 武人들을 한곳에

모아놓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무인에 해당되는 인물들과 그와 연관된 탁본들을 다수 수록해 놓았다. 『금석집첩』에 수록된 60여 명에 이르는 武人 자료는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전근대 武人의 삶과 행적을 복원하고 그 가치를 재해석하며, 武人들의 사회문화적 위상과 특질을 이해하는 데에 기초적인 자료로서 널리 활용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金石集帖』, 일본 교토대학 부속도서관 소장.
『金石錄』, 고려대 도서관 소장.
洪良浩, 『海東名將傳』, 고려대 소장.
_____, 『海東名將傳』, 조선광문회, 1911.
_____, 『海東名將傳』, 해천서당 편역, 『새로 풀어쓴 海東名將傳』, 박이정, 2014
李宜顯, 『陶谷集』, 한국문집총간 180-181.
宋時烈, 『宋子大全』, 한국문집총간 108-116.
李奎象, 『一夢稿』, 규장각 소장.
『溪鴨漫錄』, 규장각 소장.
『溪西野談』
『東稗洛誦』
『左溪裒談』

구자훈・한민섭, 「김재로 金石錄의 구성과 그 특징」, 『한국실학연구』 21, 한국실학학회, 2011.
박철상, 「조선시대 금석학 연구」,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2014.
서인원, 「이계 홍양호의 역사인식」, 『동국사학』 29, 동국역사문화연구소, 1995.
심경호, 『한국의 석비와 비지문』, 일조각, 2021.
안 확, 『朝鮮武士英雄傳』, 明星, 1940.
유진 박, 『조선 무인의 역사』, 유현재 역, 푸른역사, 2018.
전호수, 「고문헌을 통해본 조선시대 명장」, 『군사』 9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진재교, 『이계 홍양호 문학연구』, 성균관대 출판부, 1999.
최형국, 「정조의 문무겸전론과 병서 간행」, 『역사민속학』 39, 한국역사민속학회, 2012.

고려대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 https://portal.nrich.go.kr/kor/index.do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국사편찬위원회 http://www.history.go.kr/
규장각 https://kyudb.snu.ac.kr/index.jsp
장서각 https://lib.aks.ac.kr/index.ax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aks.ac.kr/

【Abstract】

Regarding materials related to the military officials in the *Geumseokjipcheop* (金石集帖)

Chung, Woo-bong*

Only a few figures are known about the existence of military official in the Joseon Dynasty, such as Yi Sun-sin and Im Gyeong-eop, and other military leaders and generals who were active in the Imjin War and the Jeongmyo Horan are known. It is thought that the discourse on 'Martial Arts' has not been actively pursued in earnest because of the overlapping historical tradition since the Joseon Dynasty, which valued martial arts, with modern memories of Japan's colonial rule, which used 'the Way of the Warriors' as a stepping stone for imperialism. Keeping in mind that re-recognition of 'martial arts' and revitalization of discourse on 'martial arts' are one of the most urgent tasks at this stage, this thesis examines the data on martial arts contained in *Geumseokjipcheop* (金石集帖) in the library of Kyoto University, Japan. The current situation was reviewed in general.

Geumseokjipcheop not only gathered military officials in one place by separately setting up the items of martial arts and martial arts, but also recorded a number of rubbings related to the figures corresponding to military officials in other places. *Geumseokjipcheop* about 70 military officials are basic data for restoring and reinterpreting the values of warriors in the pre-modern era, which have not been properly illuminated, and understanding the social and cultural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military officials needs to be widely used.

Keywords: *Geumseokjipcheop*, Jae-ro Kim, warrior, military official, commander, Lee Wan, Bung-ik Jang.

접수일: 2022.09.29. ‖ 심사일: 2022.10.18. ‖ 게재확정일: 2022.11.25.

*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